**선교적교회와 목회 리더십 실제**

**Missional Church and Pastoral Leadership**

****

**강사: 배 현 찬 목 사**

**주예수교회담임**

**사회선교센터 원장**

**KWMC 공동의장**

**KAFHI 이사장**

1. **선교적 교회**
2. **선교적 교회의 사역원리**
3. **선교적 교회 리더십**
4. **선교적 교회 목회 리더십**
5. **선교적 교회 목회 리더십의 과제**
6. **선교적 교회 목회 리더십 실제 사례**

**I. 선교적교회**

선교적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처한 문화적 환경과 지역사회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거론되었다. 지역 사회의 문화를 선교적 상황으로 수용하는 태도로서 그 교회의 상황에서 독특한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는 과정을 선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Ed Stezer의 해석에 의하면,

*“잃은 자를 주목하는 교회 성장 (Church Growth), 통전적(Holistic) 구조를 강조하는 건강한 교회 (Church Healthy)와는 다른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교회에 적합한 하나님의 독특한 비전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의 핵심 <*Ed Stezer and David Puturan, Breaking the Missional Code; your church can become a missionary in your community, p.48>”이라고 해석한다.

선교적교회의 학문적 논의와 발전은, 1998년 북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GOCN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를 이론적으로 종합한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가 시발점이다. 레슬리 뉴비긴 (Lesslie Newbigin)이 평생을 인도 선교사로 사역한 후 선교파송국인 영국으로 귀국한 후 맞딱드린 영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기독교의 선교현장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선교적 교회론의 주도적인 선교신학자인 데럴구더(Darrell L. Guder)는 선교적 교회의 본질과 특성을 성서적 (Biblical), 역사적 (Historical), 현장적 (Contextual), 종말론적 (Eschatological), 실천적 (Practical)으로 설명한다. <Darrel l. Guder ed., Missional Church: Vision for the Sending of Church in North America, 25-45> 이러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친밀성 (예배를 통한 성령의 내적소통)과 공적 영성 (이웃사랑)이 함께 뿌리와 줄기같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이학준 교수는 주장한다.

*“선교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안에서 많은 감사와 승리의 경험들이 이어져야 한다. 선교적 교회론은 궁극적으로 은혜를 입고 감사할 줄 아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론이다.”* <이학준, 한국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 공적 영성 / 목회와 신학 2013년, 3월p.73-74>

한국교회가 소유한 장점인 예배와 기도가 ‘공적 영성’으로 나타날 때 선교적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북미주에서 선교적교회 현상이 드러난 20여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 특징을 종합한 것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를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1. 분명한 선교적 소명을 발견한다. (Missional Vocation)*

*2. 선교에 대한 성서적 기초와 제자도가 세워져야 한다. (Biblical Foundation and Discipleship)*

*3. 대조 사회로서의 위험을 감수한다. (Taking Risk as a Contrast Community)*

*4.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하는 구체적 실천이 있다 (Practices that Demonstrates God’s Intent for the World)*

*5. 공적 증거로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 (Worship as Public Witness)*

*6. 성령에 대한 의존적 사역을 한다. (Dependence on the Holy Spirit)*

*7.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Pointing Toward the Reign of God)*

*8. 선교적 귄위 (Missional Authority)*

<이상훈, 북미 교회 갱신운동의 흐름에서 본 선교적교회와 사역원리, 목회와 신학, 2016.12>

이와 같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요소와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선교적 교회는 굳건한 성서적 전통(Biblical Tradition)을 바탕으로 상황적인 문화 수용 (Cultural Context)을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Community Service)에 집중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1. **선교적 교회 사역원리**

북미 선교적 교회 운동을 지향하고 100여개 교회를 방문하여 그 가운데 22개 교회를 중심으로 분석한 이상훈 교수는 선교적 교회 사역을 세가지로 종합한다.

*“첫째,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기 존재와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기반으로 세워진다. 둘째, 선교적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내적 사역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 셋째, 선교적 존재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가 세워진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Ibid., 2016.12>

그는, 선교적 교회로 갱신한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규모와 상관없이 매우 역동적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관찰하였다. 매우 특이한 현상은 대다수의 선교적 교회가 현재 담임목사에 의해서 개척되었고, 회중의 평균 연령이 20-30대로 젊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다음세대를 위한 젊은 사역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변화된 새로운 시대 문화를 이해하면서, 다음 세대를 품고 사역할 수 있는 사역철학과 목회 패러다임이 개발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북미의 이상훈 교수는 탐방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선교적 교회는 하나의 획일적 모델이나 패턴으로 정형화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선교적 교회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놓여있는 지역사회에서 앞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식별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최우선적 과제로 여긴다. 즉, 선교적 교회는 하나의 탁월한 사역을 모델로 삼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있는 지역 위치와 성도들의 특징과 은사, 부르심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한 사명을 찾고 그 것에 헌신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것이 교회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선교적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이유이다.”* <Ibid., 143>

1. **선교적 교회 리더십**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신앙생활하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 공동체로 변혁 (Transforming)시킬 수 있는가? 변화 (Changing)시키기 위해 요청되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선교적 리더십이다.”* <한국선교 신학회편, 선교적교회론과 한국교회, 전석재,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 p.289>라고 해석한다.

찰스 밴 앵겐 (Charles Van Engen)은 선교적 교회 리더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리더십은 하나의 연합적 (Corporate Event)사건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명과 뜻에 따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 그들이 선교하는 삶의 현장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성령으로 감동되어 동참하도록 그들을 독려하는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가는 연합된 사건이다.”* <Charles Van Engen / 임윤택역, God’s Missionary People, 하나님의 선교적교회 p.278-279>

선교적 교회 리더십은 믿음의 공동체가 몇몇 사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 리더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영적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때 일어나는 ‘연합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런 리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선교하러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비전이 있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Ibid., 279> 이 리더십은 ‘성육신적 리더십’ (Incarnational Leadership) 과 ‘섬김의 리더십’ (Servant Leadership) 으로 특징지어 진다. <전석재, 선교적 교회 리더십, p. 290-291> 이러한 리더십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으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적 임무를 수행하는 리더십으로 해석된다.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선교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를 세상으로 방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루어가는 영향력이다. 이런 리더십으로 인해서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를 자신들의 만족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종교적 상품 판매처로 만들지 않고, 제자로서 개인적으로 선교적인 삶을 구현하며 공동체적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통해 교회 본질을 추구하게 되어 간다고 본다.

선교적 교회 리더십에서 록스버그 (Alan J. Roxburgh)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교를 위해 준비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선교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비결은 선교적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보며, 이 리더십은 성령에 의해서 공급되고 인도되어 진다고 주장한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서 이루어진 선교적 현상을 선교적 교회로 해석하고 결단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주목하라고 한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1절-13절에서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목회 지도력의 목표와 기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선교적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적용한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이 말하는 다양한 은사들과 기능들을 표현한 리더십 팀을 제안한다. <록스버그, 선교적 리더십 / 선교적 교회: 북미교회 파송을 위한 비전 p. 272-319>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선교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적 방향과 리더십의 역할에 대해서 전통적인 목회 리더십에서 사도적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과거 전통적인 교파 중심의 교단 리더십과 비 상황적인 신학교육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도적 정체성을 가진 삶의 방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 **선교적 교회 목회 리더십**

한국에서 조사된 선교적 교회의 실체속에서 드러난 선교적 교회 리더십을 조사한 한국일 교수는 선교적 목회에 적합한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지역사회로 부터 분리된 개교회 중심의 교회론을 지향하였으며 지역사회에 전도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관심은 없는 ‘친교없는 전도와 선교’활동을 해왔다. 이런 자기 중심적 교회는 성장시기에는, 즉 지역사회와 주민들로부터 교회가 신뢰를 받던 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문제로 노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면서 지역사회로 부터 개 교회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p.314>

그는 목회자가 교회 영역을 넘어서 지역사회로 나가 주민들을 만나게 되는 활동을 ‘선교적 목회’라고 보면서,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목회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제도권으로부터 운동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목회 리더십을 형성해야 한다”* 고 강조한다. <Ibid., p.317>

그는 지난 13년 이상 동안, 한국교회의 선교적 교회 실제 사례를 탐구하기 위하여, 전국의 교회들을 탐방하고 연구한 후 현장에서 확인된 선교적 목회 리더십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영성에 기초한 진정한 리더십; 오늘날과 같은 불신과 저성장 시대에 진정성의 리더십은 교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가 지역사회까지 미치는 목회자의 역량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진정성은 한 마디로 목회자가 가진 ‘교회와 세상, 사람에 대한 진실한 열정’이다. 목회자의 진실함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리더십은 그의 목회관을 형성해 온 일관성있는 목회 소신과도 깊은 연관을 갖는다.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형성되어 온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소신이 그의 목회를 일관되게 이끌어간다. 이러한 선교적 목회 리더십의 기초로 영성에 기초한 진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정하고 싶다.*

*둘째, 개척정신의 리더십; 선교적 리더십은 전혀 기반이 없는 선교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이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 필요하다. 김용기 장로의 사례 , 양평국수교회, 부천새롬교회, 안성율현교회처럼,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진 목회자는 기존의 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매우 창의적으로 접근하면서 다양한 선교적 목회 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셋째, 소통과 동행 (협력) 리더십; 선교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행위이다. 선교는 결코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세상을 이해하고 시대와 문화, 상황의 특징을 살피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는 목회적 리더십에는 목회자의 권위에 의존한 수직적, 일방적인 소통의 관계를 지양하고 성도들과 함께하여 평등하게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추구한다. 선교적이란 용어 안에는 타자에 대한 열린 태도와 소통의 의미가 담겨있다.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의 선교는 세상을 향해 열린 태도를 가지며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소통하지 않으면 실천이 불가능하다.*

*넷째, 섬김과 세워주는 리더십; 선교적 목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가 동역자의 관계로 재설정 된다. 선교적 목회 리더십에서는 성도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며 교회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를 양육하고 세워주는 일에서 목회자의 기쁨과 보람을 찾아야 한다. 목회자는 개인의 목회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한 목표를 향해 참여하는 성도들을 세심히 살피고 배려하며 그들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함으로 성도를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활동에 중심으로 세우게 된다.”* <Ibid., p.320-337>

이러한 점에서, 서울의 한남 제일 교회 오창우 목사는 ‘나는 이 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닌 이 지역의 마을지기다’라고 선언한 후 지난 30년의 사역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변화 시킨 선교적 교회 목회 리더십의 모형이라고 평가한다. <목회와 신학2013.3 &월간목회2017.2>

1. **선교적교회 목회 리더십의 과제**

전통적인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 변화가 어느 단계에 와 있을 때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선교적 교회의 모형과 이상은 어떠한 상태를 두고 말하는가?

*로 유스와 벵겔드는 선교적교회로의 변화를 위한 7가지 핵심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명확한 비전*

*2)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제자훈련*

*3)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

*4) 선교적 리더십팀 조성*

*5) 갈등의 상황에서도 흔들임 없이 지속적으로 선교에 집중*

*6) 교회 재정에서의 청지기 사명 감당*

*7)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 과정에서의 격려*

<Rich Rouse & Craig Van Gelder, A Field Guide for the Missional Congregation: Embarking on a Journey of Transformation, p.42-43>

특히, 4단계에서 제시되는 선교적 리더십 팀 조성이 이루어 질 때, 공동체적 갈등을 극복하여 선교가 정책적으로 실행에 옮겨진다고 주장한다. 밴 겔더는 선교적 교회 리더십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리더십이야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교적 교회를 이끄는 핵심어라고 보았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이다.”* <Van Gelder, The Ministry of the Missional Church, p.19>라고 해석한다.

선교적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발전되는 과정이 지속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이다. 이 리더십은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1)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2)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Van Gelder, Ibid., p.59-60>고 강조한다. 첫 번째 질문은 믿음과 분별력을 필요로 하고, 두번째 질문은 지혜와 계획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종합하면 선교적 리더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지를 찾는 실제적, 공동체적 영성을 지향한다.”* <한국선교 신학회편, 선교적교회론과 한국교회, 전석재, 이병옥: 크레이그 밴 겔더 (Craig Van Gelder)의 선교적 교회론, p.112>. 그는 이러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선교적 리더십을 특정 인물이나 조직, 프로그램으로만 보지 않고 그러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과정 (Process)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 과정은,

*1) 교회 공동체가 성령에 이끌리는 공동체로서, 공동으로 분별하고 논의하는 것이며,*

*2) 교회 공동체가 가진, 역사적, 상황적 형편에 따라 독특한 신학적 관점을 개발하며,*

*3)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다양한 사회이론과 사회과학 방법론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4) 교회가 결과적으로 취하는 행동은 전략적이어야 한다.*

밴 겔더는 이 네가지 과정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만 하되, 이 넷이 시간적 순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Craig Van Gelder / 최동규역, The Essence of the Church: A Community Created by the Spirit, 교회의 본질>

1. **선교적 교회 목회 리더십 실제사례**

1. 신학훈련과 사역

문교부 유학 시험을 치르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 한국사회가 기대하던 민주 사회가 뒷 걸음치는 정치적 격변을 겪고 보면서, 미국 장로교(PCUSA) 신학교 중에 하나인, 중서부에 위치한 조그만한 신학교(Univ. of Dubuque Theological Seminary)에 가족을 데리고 1981년 1월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첫 학기 수업에서 과테말라에서 온 방문 교수로부터 해방신학 (Liberation Theology)을 공부할 수 있었다. 남미에서 생성된 해방신학은 당시 제 3세계 신학으로, 서구 신학계에 큰 반항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었다. 필자는 한국의 민중 신학의 창시자였던 서남동 교수에게 연세대학교 신학과 학부 논문 지도를 받으면서 인간화에 대한 논문을 썼었다. 해직교수 였던 김찬국 교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었던, 당시에는 금서이던, 카톨릭에서 번역된 책(성념역, 해방신학)을 접할 수 밖에 없었던 나로서는 뜻 밖의 기회였다. 호기심과 함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론적 배경을 접할 수 있었던 좋은 감동적인 순간들이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 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를 전공(TH.M) 하면서, “라인홀드 니버”의 사랑과 정의 이해”란 논문을 썼던 나에게는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했다. 그 후 유학생들과 교수들이 중심이 된 캠퍼스 타운의 첫 이민 목회 현장에서 교인들과 로마서를 정독하면서 분명한 구원론과 성서적 교회관에 입각한 균형잡힌 자유로운 복음주의적 목회(Liberal Evangelical)를 추구하여왔다. 보수적인 교회 전통과 복음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라면서, 보수적인 한국교회의 장·단점에 깊은 인식과 회의를 품고, 자유로운 종합대학교 안에서 신학을 하면서 복음과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 사회 윤리에 집중하였던 것이다.

도미 유학의 목표였던 박사과정을, 보스톤 대학교 대학원에서 M.L King Jr. 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다. 킹의 교수였던 Walter G. Muelder 명예 교수의 강의와 킹의 학창시절 동료였던 Cartwright 교수의 지도하에 킹의 ‘비폭력 사상과 사회 변화’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킹이 공부했던 현장에서 깊이있고 생동감있게 연구 할 수 있었던 시기였었다.

때마침, 레이건 대통령이 킹의 생일을 국가 기념 공휴일로 재정하여(1986년 1월) 공포할 때 였으므로, 그와 관련된 킹의 사상과 생애를 미주의 여러 언론이나 기독교 신문 그리고 재미 기독 학자회(프린스턴 신학교) 에서 발표하면서 학문적 이론을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 조명 하기도 하였다. 그 사이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부터 학문적 과제로 삼고 미국으로 왔던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양극화의 해결 문제를 이론과 함께, 실제 목회에서 점점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인종화합에 대한 한인 이민교회의 사명(The Korean Immigrant Church as Transformer of Culture with Racial Harmony, LBU/BU. Ph.D)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이론적 탐구를 목회현장에 적용하는 이민 목회자로서의 인식 전환과 사명 발견이 있었다.

논문을 쓰면서, L.A 4.29폭동 현장을 몇주간 탐방하는 가운데, 이민 목회자로서 새로운 시대 인식과 목회전환이 있었다. 1992년 4.29 폭동을 통하여 미주 한인 이민 사회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이민 목회 현장에서 그러한 사회적 도전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4년부터 목회 사역의 중점 가운데 하나로, 인종 화합의 과제를 가지고 인근의 흑인 교회와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리면서 합창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인종화합 합창제는 지난 20여년동안 10회를 거치면서, 한’흑 관계에서 발전해서 이제는 한,흑,백,히등 다민족이 정기적으로 친교하며, 합창제를 함께하는 인종 화합의 무대가 되어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릴 뿐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메아리를 울렸다.

2. 사회 정의를 위한 사회선교

한.흑간의 화목은 당시 지역 한인 사회의 조그만한 가게들이 많이 모여있던 리치몬드시 동쪽의 흑인 밀집, 저 소득 및 빈민촌 지역에 소재한 같은 교단의 흑인 교회를 선택해서 오랜 세월동안 형제 교회의 관계로 발전되어 왔다. 그 계기로 지역 흑인 Community 지도자들과의 T.V 좌담회가 여러 번 있었으며, 그 영향으로 1997년도에는 Asian으로는 처음으로 Virginia 주 의회에서 개회 기도를 인도하기도 하였다. 인근의 여러 종족과의 인종화합 합창제가 잘 정착되면서 인근의 백인, 히스패닉 교회와의 오랜 세월 지속적인 교류를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여러 타인종과의 유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갔다.

주 예수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1999년부터 교회는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과 교인들의 일체된 훈련을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 사역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인종화합 합창제에 이어 매월 빈민 독거노인 수리, 매 주 토요일의 Homeless Soup Kitchen 먼로 공원 사역이 10년 넘게 정착하게 되었고, 2004년 다목적 홀의 건립과 함께 매년 여름 1주일동안에는 Caritas(Congregations Around Richmond Involved To Assure Shelter) 라는 Homeless 사역 기관을 통하여, 50여명의 노숙자들 숙식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

매년 여름의 단기선교도, 몇회의 해외 선교를 제외하고는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아팔라치안 산맥 빈민촌 선교 ASP(Applalachia Service project) 단체를 통해서, 미국 인들과 함께 매년 계속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교회의 지역 사회 봉사는 10여년 전부터는 “사랑과 정의를 위한 사회선교(Social Mission for Love and Justice)라는 모토하에 연령별 선교회와 2세들이 함께 동참해 오고 있다. 교회 공동체는 사명있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면서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기독교 사회윤리의 양대축을 바탕으로, 늘 성서해석과 사역 실천을 종합하는 가운데 균형있게 실천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다.

지난 20여년동안 주중의 심도깊은 제자반 교육이나, 주일 아침의 ‘공동체 성경공부’ 반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또는 공동체적 전체그룹 성서 연구를 통해서 영적 기초를 단단히 다지며, 공동체적 사명 안에서 일체감을 가진 양육· 훈련을 꾸준히 계속해 오고있다.

온 교우들이 빠짐없이 동참 할 수 있도록 오픈한 Stop Hunger Now 프로그램이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정기적인 헌혈, 등도 꾸준히 지속되었다. 거의 매년 개최된 ‘한국음식문화축제’ 같은 행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친근하게 되었으며, 지난 10년간 지역 주민들의 운동 모임이 주 3일 계속해서 다목적 체육관에서 있었고, 현재도 매주 지역 청소년들이 농구 교실 모임이 계속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한인 이민 사회를 위한 무궁화 한국학교, 여름 문화학교, 그리고 무궁화 시니어 센터 같은 지역 한인 사회 봉사 사역도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어 왔다.

백인 보수층의 안정된 주거 및 상업이 활발한,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 설비는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체육관은 성인 및 아동 운동으로, 본당은 히스패닉의 결혼식 장소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감나무 가로수와 소나무 뒷길로 가꾸어진 교회 주변의 조경과 미화는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물확장을 통한 환경 변화는 지역 사회에서도 함께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공동체 시리즈 출판

2011년 이민 목회 30년이 되던 해, 주예수교회가 한인교회 최초로 미국 장로교 (PC USA)가 수여하는 ‘사회 봉사상’을 받게 되었다. 미국의 저명한 교단 신학교 가운데 하나인 유니온 신학교 (Union Presbyterian Seminary, Richmond VA)에서 매년 전 미국의 교단 산하 11000여 교회를 대상으로 심층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는 이 명예로운 상(Elinor Curry Award for Outreach and Social Concern)을 교단의 400여 한인교회 중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수상하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교회의 선교 사역을 정리하여 이민교계에 나누는 일을 시작하였다.

“사회선교는 이렇게” (쿰란 출판사, 배현찬 2012)라는 책은 선교적 교회의 이론 배경과 실례들을 종합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사회 봉사에 대한 실제적 자료와 사역원리들을 한데 묶은 것이다.

교회의 사회선교 사역이 한 권의 책으로 종합되고 출판되어, 선교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선교사들 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은 선교적 교회 자료집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결실이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을 함께 고백한 것이 공동체 시리즈 I, II, III (함께 세우는 공동체, 함께 자라는 공동체, 함께 섬기는 공동체)를 묶어 세 권을 동시에 출판하는 용기를 내게 된 것이다.

“리더십은 이렇게” <함께 세우는 공동체/ 공동체 시리즈 I. 배현찬>는 느혜미야 강해설교집으로 공동체의 회복과 교훈을 위한 느헤미야 리더십이 제자훈련과 사회선교 사역에서 균형을 이룬 디아스포라 목회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추천사에서 정인수 목사는 *“저자 배현찬 목사님은 척박한 이민 목회지에서 창조와 비전의 리더십을 가지고 성공적인 목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처절한 목회 위기 가운데 절망의 나락에도 빠져 들어갔지만 목사님은 다시금 일어나 새로운 부흥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 동안의 아픔과 상처가 목사님의 리더십을 새롭게 갱신하는 은총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한 덩이가 되어 성벽을 건설한 것과 같은 동일한 이야기가 주예수 교회를 통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목회가 담임목사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평신도들과 공유하는 배 목사님의 뚜렷한 평신도 사역철학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오정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회복의 뿌리는 건강한 공동체요, 공동체 개인의 출발인 비전 성취의 열매는 협력입니다. 말씀 중심의 제자훈련과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사역에 집중하여 이민목회의 귀한 모델이 되고 있는 리치몬드 주예수교회 배현찬 목사님의 이민 목회 30주년을 맞아 출간하는 공동체 시리즈의 첫 번째로 느헤미야를 선택한 것은 그런 점에서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다.

많은 목회자들이 궁금해 하면서, 질문하는 “어떻게 그러한 사역을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응답을 “함께 자라는 공동체”라는 공동체 시리즈II, <양육은 이렇게; 로마서 함께 읽기 및 적용>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주일 1부예배 (8시)와 2부 예배 (11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동체 성경공부 (9시30분-10시30분)가 바로 그 핵심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주일 아침 성경공부는 디아스포라 목회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교인 양육 프로그램이었다. 때때로 소그룹 성경연구 및 토론, 혹은 주제별 소그룹 반, 성경통독반 등으로 여러 그룹과 단계의 성경공부, 그리고 주중에 수년동안 이루어진 제자반 훈련이 있었지만, 주일 아침 목장 성경공부는 담임목사가 직접 심혈을 기울여 교인들을 공동체적으로 양육한 영적 성숙과 봉사훈련의 샘터였다. 그 결과로 출판된 책이 <양육은 이렇게-로마서 함께 읽기 및 적용, 함께 자라는 공동체>이다. 한국에서 제직훈련 세미나 지도자중 한 사람으로 주목된 신학자 출신의 목회자인 김성봉 목사는 “*탁월한 본문 해석과 강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신앙훈련과 성장을 위한 교재”라고 추천하였다. 신약학자로 다양한 논문들을 계속해서 많이 쓰고 있는 이민 목회자인 유승원 목사는 “간결한 로마서 주석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학문적 노력이 담겨있지만, 탁상 공론이 아닌 목양현장의 체험과 영감이 깊이 배어있는 성경공부 안내서”*라고 평가하였다.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원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마서를 총 40개의 단락으로 쪼개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거의 다 섭렵할 수 있게 조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가정교회나 (Cell) 구역 식구들이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이라 판단이섰습니다.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자세한 강해와 설명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읽기만 해도 묵상을 위한 영감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룹에 함께 모여 ‘삶을 위한 생활 적용’을 중심으로 서로 나누게 되면 관념의 유희에서 그치지 않는 실천이 신앙공동체를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라고 추천하였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사회봉사 (Social Mission for Love and Justice)라고 부제가 붙은; 공동체 시리즈III: 함께 섬기는 공동체인 <사회선교는 이렇게> 는 지역사회 봉사 이론 및 실제를 기술한 것이다. 필자 뿐아니라 교역자팀 (신현호, 강인호, 김영훈, 은광현, 추정순)이 함께 저술한 것이며, 많은 교인들의 소감문과 간증이 실제 사례와 함께 종합된 공동체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주예수교회 공동체의 ‘사회선교’ (Social Mission)사역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집대성한 것으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과 지역사회 봉사 사역을 위한 참고서로서 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이민목회자로서 PGM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전문인 선교사역)을 창립하여, 이민교회 선교의 리더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의 호성기 목사는 이책을 여러번 이민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에게 강조하면서, *“성경적인 교회론 위에 세워져 있는 건강한 ‘사회선교’모델*”로평가한다. *“목사님의 확고한 교회론은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요지 부동의 건강한 신학입니다. 교회는 존재 이유자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에 있다는 신실한 선교 목회의 신학자이십니다. 목사님의 지역교회에서의 사역이 성경적인 교회를 위해 세워졌기에 참으로 건강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배 목사님이 이끌어 오신 주예수 교회는 철저히 지역사회와 미국인들의 주류사회 속에 들어가 ‘빛으로 소금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쳐 왔습니다.”*라고 평가한다.

유니온 신학교 방문교수 1년동안 주예수교회 생활을 했던, 연세대학교 정종훈 교수 (기독교 사회윤리)는 *“저자 배현찬 목사님은 목회와 사회선교 양측을 균형있게 견지하고 계신 보기드문 리더십의 목회자이다. 실천적인 윤리학자 이시고, 동시에 삶의 자리를 정의 위에 평화 공동체로 변혁하고자 애쓰시는 사회운동가 이십니다. 이 책은 미국의 한인교회 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들까지 교회가 한국인의 섬처럼 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호흡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지침서이자 교보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큰 교회를 지향하는 주예수교회의 대열에 목회자 독자들과 평신도 독자들 모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책을 추천하였다.

주예수교회 창립시 부터 저자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섬기는 공동체에 대한 뜨거운 비전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김세광 교수는 (서울 장신 대학교) ‘사회선교는 이렇게’라는 책은, “  
*첫째 이민교회 목회자를 위한 통찰력있는 목회 지침서로, 둘째, 이민사회의 단체장이나 그룹들의 전략지침서로 셋째, 이민자들 개개인의 의미있고 보람된 삶을 위한 지침”이라고 특징지었다. 그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동안 독자들은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 땅에서 단지 자신들의 생존게임이 아니라, 성서적 가치를 실현하는 미국 사회를 건설하는 현장에 서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된 이유와 동기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으로 발전하는 짜릿함을 맛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이민교회와 사회적 공헌에 대한 성서적 원리와 실제를 다룬 귀한 자료 교과서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미국 사회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의 목회적 로드맵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평가하였다.

4. 사회선교원과 선교적 교회 세미나

2014년 부활절, 창립 15주년을 지나면서 ‘사회선교센터’ (Diaspora Social Mission Center for Love and Justice)를 봉헌하게 되었다. 2세 교육을 위한 제반 시설, 영어 목회 및 문화 행사를 위한 커뮤니티룸, 선교 세미나룸, 행정실, 교역자 사무실 등 여러가지 기능을 가진 아름다운 건물을 봉헌함으로써 선교적 교회의 내실과 모양을 잘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사회선교 센터의 선교룸은 사회 선교 연구원으로 지명하여 선교적교회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는 내적계발과 세미나를 통한 외적 사명에 더욱 발전적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2014년부터 사회선교 연구원 주관으로 매년 봄 미주 이민 교계를 대상으로 한,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주최할 수 있게 되었다. 세미나는 매회마다 각각 다른 기관과 협력 함으로서 효율적으로 대, 내외적 홍보와 함께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이민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으며, 갈 수록 영향력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미주 한인 교계의 선교 올림픽이자 세계 선교사의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한인 세계 선교 협의회 (Korean Wold Mmission Conference)가 주최하여 매 4년마다 열리는 한인세계선교 대회에서, 2차례의 주제강연을 통해서 이민 교계와 세계 한인 선교사들에게 선교적 교회를 소개하며 홍보함으로써 선교적교회 운동 사명을 감당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 제7차 대회: 이민 교회의 사회봉사, 2016년 제 8차대회: 선교적교회) 8차 대회의 주제강연을 전한 기독일보는 ┌배목사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방향과 교회개혁의 차원에서 이 운동이 논의 되고 있다’면서 ‘외형적 성장과 내면적 성숙의 불균형 속에서 건강한 한국교회 미래상으로 제시되는 교회론’이라고 설명했다.’ ‘교회가 선교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함께 교회 리더십과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나 목회자가 가진 비전보다 성령께서 우리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지 듣는 훈련’이라고 했다.┘ 벤겔더(Craig Van Gelder)가 강조하듯이, 성령께서 오늘도 세상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서 활동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그간의 선교적교회 세미나의 주제와 강사들은 아래와 같다.

**제1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주제: 선교적교회 건강한 교회 –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명적 교회로 거듭나기

강사: 최형근 교수, 김종국 선교사, 배현찬 목사, 노승환 장로

협력: KWMC

일자: 2014년 6월 12일~14일

참석: 35명

**제 2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주제: 선교적교회와 이민교회의 선교

강사: 노진준 목사, 안인권 목사, 배현찬 목사, 백신종선교사, 노승환 장로

협력: KAFHI (국제 기아대책 기구 미주 한인 본부)

일자: 2015년 2월 23일-25일

참석: 28명

**제 3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주제: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강사: 한국일 교수, 신광섭 교수, 배현찬 목사, 노승환 장로, 박태은 장로

협력: CBTS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D.Min. Program)

일자: 2016년 3월 14일 – 16일

참석: 63명

**제4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주제: 선교적교회와 목회 리더십

강사: 이학준 교수, 신혁선 교수, 최병호 목사, 배현찬 목사, 노승환 장로

협력: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협의회 총회 (NCKPC) 국내 선교위원회

일자: 2017년 3월 13일-15일

참석: 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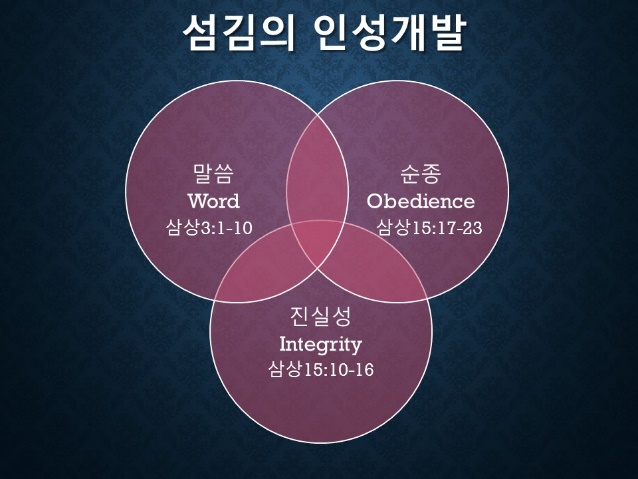
지난 3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선교에 대한 관점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을 많이 듣고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적 관점 속에서 목회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균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선교적 교회 지향적 목회를 추구하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D. Min.논문을 쓰고 있었던 많은 분들 중에서 어느 참가자는 *“그동안 혼자서 책으로만 알던 선교적교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배현찬 목사님의 깊은 신학적 확신과 뜨거운 목회 열정을 통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느리지만 선교적 교회를 향한 비전의 씨를 심어보겠습니다. 저의 아내 역시 이번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마음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도전적인 평가를 하였다.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었고, 때론 공감이 되면서도 현실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기대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순서상으로 짜임새가 있었습니다.”*라고 전반적으로 세미나를 평가하였다. 어떤 참가자는 *“선교적 교회의 철학과 신학적, 성경적 근거를 먼저 다룸으로써 사회봉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선행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선교적 교회의 마땅한 모습로서의 섬김을 볼 수 있게 해서 좋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교회의 선교적 사역을 함께 협력하는 기관들을 방문하는 가운데 *“교회가 협력하는 CARITAS, Renew Crew라는 기관들을 알게 된 것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야에서 사람을 살리고 또한 사랑을 전하는 새로운 기관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사역을 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좋았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여 주었다.

5. 뒤돌아 보며, 앞을 바라보며

1999년 11월 첫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배현찬 목사와 뜻을 같이한 성도들로 설립된 주예수 교회는 개척 당시부터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하였다.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 주예수 교회는 말씀으로 양육 훈련받은 디아스포라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다. Lord Jesus Korean Church serves God and neighbors as a Diaspora community by being strengthened through the Word of God). 2년 후 본당을 증축하면서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을 이상선언문으로 확정하였다. (이상선언문 /Vision Statement: 주예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가 은혜롭고 2세 교육에 앞서가며, 사회봉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전력한다. Lord Jesus Korean Church as a body of Christ strives to extend God’s Kingdom on earth through grace-filled worships, education, and compassionate community services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요셉의 꿈’이라는 뮤지컬을 공연 하면서 창립 10주년을 보내고 14주년을 맞으면서 2013년 10월 20일 선교주일에는 ‘선교적 교회 선언문’을 선포하게 되었다. 교회 공동체 수양회에서 온 성도가 참여한 가운데, 수년동안 진행되고 개발 되어 온 ‘사명적 교회’ (Missional Church)라는 공동체적 일치와 목표를 당시 한국의 학자들 사이에서 번역된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라고 명시하게 되었다. 2015년은 교회 표어를 ‘지역사회를 함께 섬기는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 United in Serving Community Together)설정하면서 목표를 향해 더욱 공동체적인 일치를 추구하게 되었다. 2017년에는 2020년까지 4년동안 선교적 방향과 실천을 더욱 구체화 하면서, Vision 2020을 재정하였고 (Vision 2020: 사랑으로 섬기며 정의로 나누는 선교 공동체 The Mission Community Serving in Love and Sharing in Justice), 이러한 비전에 따라 개인적으로는 더욱 실천적 삶으로, 공동체적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나갈 것으로 본다.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한 양육과 훈련은 이러한 선교적 교회 목적과 방법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성도들의 삶과 공동체적 사명이 균형을 이룬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면서 선교적 교회 모형개발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 그 동안의 목회 지도력의 결실과 사역 확대의 과정에서 공동체는 성숙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갈 것으로 기대하면서 핵심 사항을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에 맞추어 적용하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섬김의 삶과 나눔의 기적을 통해서 드러난 십자가의 도를 따른느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 사명에 더욱 헌신할 것으로 기대한다.

<섬김의 인성개발> <나눔의 기적사건>

6.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 가운데

18년전 주예수교회를 개척하면서 부터 늘 기도하던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 “성령의 인도하심따라” 목회하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본당 좌우편에 걸어둔 표어대로 “주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1999년, 이전의 18년동안 승승장고 하던 이민 목회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밑바닦에서 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주예수교회 이름 처럼 진심으로 “그리스도가 머리”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염원한 것이다. 지난 세월동안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 가운데 지나오면서 그렇게 터전을 다져왔다. 개척전 잉태의 산고를 겪어가던 10개월 동안 피마르는 개인적인 좌절감과 가정적인 고통, 교우들의 아픔을 극복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했다. 그 10개월 동안 신경안정제 용으로 먹었던 노란색 수면제가 생각난다.

그간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겪은 여러번의 위기들이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는 기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여러번 경험하였다. 창립후 미국 장로교 제임스노회에 가입하는 과정가운데에서, 외부적인 방해와 제재를 극복하면서 (세번에 걸친 교단내에서의 재판에서 승소)교회는 공동체 발전을 위한 외형적 모형과 조건을 구비하게 되었다. 교육관을 짓고 난 후 사소한 개인적인 갈등 관계가 빚은 공동체 내의 불화로 인하여 제직 가정 가운데 일곱가정이 교회를 떠나면서, 인간적인 회의와 절망감속에서 헤어나오기 까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다. 인간 관계적인 세속적 악영향 때문에 집사회를 3년간 해체하고 (미국 장로교 헌법 안에서) 몇번의 치리 (Discipline)를 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개인적으로는 목회 생명을 거는 몇번의 결단이 있었다. 그 때마다 나 자신 보다는 교회의 건강과 앞날의 역사를 위한 토대를 놓는 관점에서 모험적인 결정을 하기도 했다. 몇번의 위기 순간에서는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 바람직한 목회환경과 교회 역사 미래를 우선적인 염두에 두고 도전과 맞서기도 했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공동체적 위기는 성숙과 발전의 기회가 되었으며 목회지도력은 강화되었다. 그러한 과정들을 여러번 반복하면서, 목회철학은 더욱 확고해졌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더욱 분명해져 갔다. 세월이 흐르면서 목사와 당회를 중심으로 한, 지도력은 더욱더 공고해져 갔으며, 선교적 사명(Missional)을 위한 공동체적 일체와 성장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현재의 교회건물들은 공동체의 성장과 사명이 발전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증축된 결과이다. 3000여 SQ의 조그만 첫 건물에서 지금의 30000여 SQ의 확장된 건물은 공동체의 성장과 사역확대와 함께 증축되었으며, 건물확장과 더불어 선교적 사명은 점점 증대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창립후 지금까지 첫 교회 구입후 (4에이커, 3000여 SQ, 본당과 사무실) 4번의 건축이 있었다. 창립 2년 후 본당이 증축되었고, 창립 5년 후 다목적 교육관(청소년 예배실, 한국학교 교실, 부엌, 사랑방, 세미나실) 등을 헌당할 때는, 리치몬드에서 개최된 미국 장로 교회 총회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채택되어, 총회에 참가한 수십명의 한국 목사님들을 포함한 400여명의 손님들을 모시고 감격적인 헌당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다목적 교육관 건물을 통해서 2세 교육뿐 아니라, 매년 여름 일주일 동안 50여명의 노숙자들을 숙식으로 접대하는 CARITAS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한국 음식 문화 축제,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과 시설 개방등으로 지역 사회에 성큼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다. 20여년 전부터 시작한Eastminster 교회 (흑인), Southminster 교회 (백인), Living water Pentecostal 교회 (히스패닉)등과의 인종화합제는 더욱 활기를 띄면서 지역 주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창립 10주년 때는 증축 본당과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본당을 넓히는 공사를 하면서, 400석의 본당을 헌당함으로써 주일 정기 예배와 합동 예배 (EM, 2세와 함께하는)를 여유있게 드릴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게 되었다. 그러한 세월 동안 세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파송을 요청한 선교사들의 위급한 상황에서), 4명의 목사 후보생을 후원하고 지도하면서 목사 안수를 주고, 부목사 사역을 하도록 하였으며, 미국에서 안정된 정착을 위한 배려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다가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는 사역자도 2명 배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가정 (담임목사, 당회원)에서2세 목사가2명 배출되었다. 그 동안 유니온 신학교에서 세운 (당시 Louis B. Weeks 총장과 필자가 공동 준비위원장으로 함께한) 아시안 센터를 통해서 십여명의 한국신학생들을 후원하고 훈련하는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기도 하였다.

설립 15년 해인 2014년 부활절에 봉헌한 사회선교관 (Diaspora Social Mission Center for Love and Justice)은 선교적 교회 사명에 걸맞는 2세교육과 EM예배, 청년부 및 문화활동 공간뿐 아니라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 건축은 2세 교육의 공간 문제로 자연스럽게 부각되면서, 건물의 용도와 명칭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에 걸맟게 발전되었다. 이렇게 설립 후 네번에 걸친 건축은 아주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제안되고 진행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 발전과 사명 감당에 매우 큰 바탕이 되었다. 뒤돌아 보면, 특이한 것은, 담임목사가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큰 결심을 하고 자신을 포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더불어 축복하신 은총이었다. 도미유학때 품었던 개인적인 꿈, 대도시의 유혹에 대한 개인적인 야망, 그리고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는 목표등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건축과 더불어 교회의 사명을 확장시켜 나가신 것이다. 그러한 비밀스런 신비한 과정 가운데, 담임목사의 목회 지도력과 당회 협력은 더욱 공고해 갔으며, 당회의 지도력을 통한 공동체 전체의 일치와 화목은 단단해져 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창립 때 부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장로님들의 적극적인 신뢰와 후원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담임목사의 신학 연마와 목회훈련의 과정속에서 빚어진 목회 철학과 함께 평신도 지도력이 협력해서 오늘날의 주예수교회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로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된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신묘 막측한 섭리가 드러난 것이다. 아직도 완전한 교회의 온전성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발전하듯이 본질 추구의 내적 성숙과 사명감당의 외적성장을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신실하게 부르심에 응답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다. 사회 봉사상 축하 메시지에서 도전 받은 것 처럼 *“그 동안의 사역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목격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로운 가능성을 일깨우시고, 여러분을 생명을 변화시키는 사역으로 인도해 오심을 느겼을 것입니다. 1, 2세들이 함께해 온 이러한 생명의 사역들을 앞으로도 더욱 지속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한국과 미주 한인 문화의 특성을 잘 조화시켜 지역 가운데 화홰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 기대하고 계십니다.”* (2011년 6월 19일 선교주일 예배시, Dr. Kenneth J. McFayden 유니온 신학교 학장)

지난 세월, 목회지도력을 위한 개인적 계발의 과정을 되돌아 보면, 선교적 교회의 이론 개발 과 전략 수립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 있었다. 말씀과 기도의 영적 터전위에 독서와 연구를 통한 추가가 더해졌기 때문에 목회리더십이 균형있게 성숙되고 발전되면서 열매 맺게 되었다고 본다. 2002년 학위 논문을 마칠 때까지는 15년 동안 목회와 공부를 병행하는 가운데, 언제나 학위를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므로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를 할 여유가 없었다. 논문을 마친 후 부터 여유있는 독서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폭넓은 독서를 할 수 있었는데, 특히 역사서와 인문학을 통한 다양한 사회진단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관심이 깊은 인종문제와 사회 윤리의 주제에 관해서 깊게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독서를 할 수 있었던 여건이 중요했다고 본다.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중요한 기독교 잡지들과 언론 매체를 끊이지 않고 접하면서 시대 정신과 역사 의식을 깨우는 일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본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기독교 사상’, ‘월간목회’, ‘목회와신학’ 미국의 ‘Christianity Today’, ‘Christian Century’등의 진보적 신학과 보수적 성향을 가진 각각의 다섯가지 잡지를 계속 정기 구독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계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으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환경이다. 앞으로는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평신도 지도력을 더욱 훈련하여 공동체 미래를 굳건히 세워 가면서, 2세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갈 것이다.

지난 35년간의 이민목회를 되돌아 보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손길이 늘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깊은 질곡의 고통과 벅찬 감격의 기쁨등 모든 것을 엮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환경과 주권자들 뒤에서 자기 계획을 -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충성스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 발전을 이루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도전과 위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을 최선의 방법으로 삼고 자신을 감추지 않고 남을 속이지도 않으려 했다. 그럴 때마다, 시간의 주인으로서 때맞추어 감추어진 섭리를 드러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체험하였다. 결과적으로 인내의 열매와 더불어 담임목사에 대한 신뢰는 깊어갔고 평신도 지도자들과의 연대감은 든든해져갔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가운데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선교적 교회를 섬기도록 세움받은 리더(Servant Leadership)이다.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처럼 역전승하는 목회 지도력(역전승의 리더십;Reversal Leadership) 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Faithfulness) 가 되어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십이 곳곳에서 확장 되기를 기대한다.